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수상작품집

---

#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수상작품집

---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우) 06083 서울시 강남구 영등대로112길 32(삼성동)  
tel +82-2-6919-7714 fax +82-2-3448-4247 litikorea.or.kr



 한국문학번역원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of Korea

 문화체육관광부

---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수상작품집

---

행복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해외 동포들의 문학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산문학 독후감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동포 작가들의 이산문학 작품 중 한글문학의 풍부한 전통을 세워 나가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잠재역량을 드러내 보여 주는 18편을 독후감 대상작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대회인 탓에 기간이 넉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독후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응모작들이 모두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고 해외 동포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꿈꾸는 마음가짐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기에 당선작을 고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 심사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동포 작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잘 보여 준 열 세 편을 골라 본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내년에는 부족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더 많은 분들이 이산문학 독후감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본 자료집이 세계 각지의 수많은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복한 민족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장

김사인

# CONTENTS

## 최우수상

증언으로서의 예술, 인간, 디아스포라 | 고수진 6

## 우수상

말없이 말이 스민다는 것 | 공강일 10

인간 이해의 자리 | 최태주 13

## 장려상

나라 잃은 언어는 어디에 가닿을 수 있는가 | 장혜령 18

피의 언어 | 최현지 21

정체성 시련, 나의 얼굴은 내가 서 있는 곳과 조응하는가 | 김재영 24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 | 맹철영 27

『중국색시』 경계의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패랭이 꽃 | 홍예화 30

하나가 되는 ‘우리’의 이야기 | 한고은 33

“따져보면 어떤 가족이든 사는 모습 비슷해요.” | 오주영 38

경계에 선 자들 | 최고경 43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 김보라 46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독후감 | 미야지마 요코(宮島 陽子) 49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 최우수상

최우수상

## 증언으로서의 예술, 인간, 디아스포라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을 읽고

고수진



174517, 작가 프리모 레비가 아우슈비츠에 수용 됐을 때 그에게 새겨졌던 수인번호다. 시대는 근대로 향하고 있었고 국민과 국가, 민족의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인번호가 주어졌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것처럼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의할 방법은 여의치 않아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다. 나치는 덤으로 수인번호를 줬다.

하나 디아스포라는 이제 그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러기엔 국가와 국민으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대 이후 세계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세계화란 이름으로 겨우 감춰두긴 했지만 나라 간 국경은 더 높아졌다.

솔직히 나는 그들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작가가 런던에 머물던 어느 날, 호텔방 11층에서 죽음에 대해 고뇌하는 것을 나는 오롯이 경험할 수 없다. 그저 유사한 감정을 끌어와서 ‘이렇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무엇보다 모어와 모국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나는, 한국어로 그의 책에 대한 감상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내가 쓰는 이유는 나의 글이 하나의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디아스포라 기행』은 디아스포라들이 삶의 증거처럼 남겨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작가는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한다. 각기 다른 삶, 다른 생각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작품들은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 만약 내가 책에 소개된 작품들을 직접 경험한다면 작가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됐건 내가 글을 쓴다면, 작가가 책으로 남긴 것처럼 증언으로 남는다. 증언은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표현이지만 역으로 어떤 존재

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내 글은 그의 글에 담긴 생각이 존재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1980년, 이후 약 40여년이 흘렀다. 내가 태어나기 전이고 나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그날의 어렴풋한 기억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다. 그것도 다 내가 광주 근처에서 태어난 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언뜻 보면 작가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같다. 유대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얘기를 하던 작가가 갑자기 광주로 돌아와 투옥된 그의 형들 얘기를 한다. 히틀러가 사랑했던 바그너의 음악과 중세의 성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읽고 있던 내게 두려움을 줬다. 그가 우려한 것처럼 ‘안’에 있기를 바라는 나는 ‘밖’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 없기를 바란 것이다. 우리는 예외가 되는 것이 두렵다.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 두렵다. 내 집, 내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속 편하다. 그런 삶은 사람을 착각에 빠지게 한다. 내게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착각. 하지만 정말 그런가?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다. 펠릭스 누스바움의 <유대인증명서를 들고 있는 자화상> 속 그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 더미를 준비해야 하는 작가처럼 스스로를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어떤 것으로든 증명해야 할 때가 온다. 누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줄까?

언어는 자신을 증명하기에 가장 쉬운 수단처럼 보이지만 가장 취약한 수단이기도 하다. 나치는 ‘모어=모국어=국민’이라는 등식을 적용해 독일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다. 바그너 음악의 무한 선율처럼 걸리적거리는 것 하나 없는 순수를 지향한 것이다. 예술작품으로 만들면 남다른 카타르시스를 줄 것만 같지만 이는 예외에 놓인 사람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익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말인 모어와 자신이 국민으로 속해 있는 모국의 국어를 의미하는 모국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언어사에서 언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빈번히 일어난다.

그럼에도 시인 파울 첼란은 시를 투담통신이라 했다.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 바다에 등등 띄우는 것,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도달할 지도 모르는 것. 그는 유대인으로서 독일어를 모어로 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면서 시를 썼다. 그에게 독일어는 모국어가 아니었다. 독일은 고향이 되지 못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고향은 시를 쓰는 행위 자체였다. 그는 그렇게 평생 편지를 담은 유리병을 던지다 1970년, 스스로

## 최우수상

를 던졌다.

책의 마지막에 소개되는 재일조선인 1세 시인 김하일은 한센병 환자로 이중의 차별을 받으면서 혈육과의 이별을 하고 언어와 시력, 손가락을 잃었다. 그럼에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혀끝을 이용해 일본어 점자와 조선어 점자를 배웠고 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글을 읽었다. 그는 역사를 배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했다. 그는 확실하고 온전한 답을 찾았을까. 나는 그가 다른 답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정체성은 나치즘이 선동했던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 파도를 타고 끊임 없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유리병처럼 유동적이다. 예술가 데이비드 강이 <입을 위한 선> 퍼포먼스에서 소 혀를 입에 물고 그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길게 흔적을 남겼던 것, 그 정처 없는 움직임이 인간과 예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다.

이제 나는 다시 작가처럼 프리드리히의 그림 속 나그네를 본다. 그의 시야에는 확실한 것이란 없고 그가 서 있는 봉우리 조차 위태로워 보인다. 작가는 이를 근대 이후의 길이라 말한다. 나는 그의 말을 반복하면서 나의 증언을 덧붙이려 한다. 이것은 인간의 길이고, 예술의 길이고 디아스포라의 길이다.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우수상  
우수상

우수상

## 말없이 말이 스민다는 것 『압록강은 흐른다』에 부쳐

공강일



가정방문을 오신 담임선생님은 하늘과 가까운 동네라며 웃으셨다. 우리집은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느라 읍내에서 자취를 할 때도 대학을 다닐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이, 눈이 오면 우산을 쓰고 종종걸음치는 이 바쁜 서울의 삶이 낯설어질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와 군불을 활활 지피고 등을 지지며 동면에 든 짐승처럼 오래도록 칩거한다.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나와 달리 미륵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압록강은 흐른다』를 읽으며 이미륵 선생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졌다. 그를 ‘미륵’이라 부르는 나를 부디 용서하시길.) 그는 3.1운동에 가담한 후 일본 경찰을 피해 독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이런 그의 삶이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데 이학 박사 학위를 받고 뮌헨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력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그의 따뜻한 성격,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착, 이런 품성은 그를 빛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 빛은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물들었을 것이다.

그의 글을 읽노라면 ‘르’를 발음하지 못해 ‘미륵’을 ‘미악’이라 부르는 사촌 ‘수암’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고상하다’라는 단어처럼 그의 글은 고결하고 상스럽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어로 출간되어 우리말로 옮겨졌지만 미륵의 글무늬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는 역자의 섬세함에서 비롯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역자가 미륵의 글법에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가느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신기하고 어려운 글자”를 적시듯이 그렇게 말

이다(11면).

이런 문채(文彩)는 독일인에게 생소했을 조선의 삶을 실어 날랐을 것이다. 아궁이, 마루, 떡장수와 같은 일상어는 물론 권주가, 소동파, 도연명, 한방의술 등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리 없는 이 낯선 땅에서, 미륵은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려 조바심내지 않는다. 한자는 ‘신기하고 어려운 글자’, 한옥은 ‘원형으로 지어진 집채’, 무당은 ‘소리와 춤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붓 잡는 방식은 ‘청소부가 총채를 쥐듯이’처럼 최소한의 말로 언어의 핵심에 가닿는다.

정갈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사람을 감응시키며,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독일인들은 미륵의 글을 읽으며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채우며 조선을 더욱 깊이 알아갔을 것이다. 출간 당시의 뜨거운 반응이나 중등 교과서에 실릴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네가 여기 살아서 언제나 나와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중략) 네가 원하기만 하면 동무들을 불러다 하늘이며 땅이며 세계며 사람들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니? 너는 산에다가 집을 한 채 짓게 하여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구름을 볼 수 있지 않니? 너의 어머니는 행복할 것이고, 너도 행복하게 살 것이며, 또 나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수 있지 않겠니?”(172면)

이것은 국악에 심취한 만수가 서울로 떠나려는 미륵을 만류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말은 고풍스럽고 고혹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에는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관포의 사립,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와 노장사상이 담겨 있다. 이런 지식이 글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만들지만, 설사 모를지라도 어떤 떨림을 느끼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글이 흔들여 놓은 것은 누구보다 미륵 자신이 아니었을까. 미륵은 그리움에 휩쓸려 감정을 휘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오래도록 새김질하여 그리움을 복원해낸다. 이 오랜 새김질 덕분에 우리도 그의 둥근 슬픔을 공감하게 된다. 아버지와 함께 누워 소동파와 <영탄가>를 읊었고, 기섭, 용마, 만수가 배웅을 나오고 어머니가 “너는 다시 이 에미한테로 돌아왔구나”라며 맞아주었던 일(251면), 또 그의 누이가 “너는 달빛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며 시를 지을 수 있게 거기(유럽)에도 남풍이 불어준다고 믿니?”라고 타박을 주었더라도(110면), “파괴된 성벽과 헐어버린 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

우수상

끼게 하였더라도(130면), 이런 기억은 미륵에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추억하게 된다.

독일 독자들을 향한 글이었음에도 그는 낯선 조선의 삶을 구차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다. 조선에 대한 그리움을 구구히 토로하지도 않는다. 때론 말없는 말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곤 한다. 이 침묵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을 떠나야 했던 또 다른 미륵들, 당대를 견뎌내야 했던 미륵들, 그 술한 미륵들의 삶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수상

## 인간 이해의 자리 김은국의 『순교자』를 읽고

최태주



인간은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자리를 가리킨다. 이 두 자리 사이에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과 사랑과 미움의 자리들을 하나씩 만들어낸다. 때로는 죄와 용서의 자리까지 아프게 마련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자리란 실존의 다른 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과 죽음은 땅이라는 실존적 존재 안에서 이 모든 자리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인간은 고통에게만큼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이 고통에 대항하는 치열한 저항의 역사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 신의 자리가 들어섰다. 납득할 수 없는 고통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혔지만 우리는 고통의 자리를 만드는 대신 신을 찾았다. 아니, 신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니다. 인간은 신을 만들었다. 이 말들은 모두 거짓이자 동시에 진실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리 말고도 또 다른 '자리' 하나가 더 필요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오른 재미교포 소설가 김은국의 『순교자』는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군 평양 점령과 철수라는 시간적 배경(1950.10.19.~1950.12.04.) 하에 북한군의 의해 자행된 12명의 목사 살해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국은 목사 집단살해사건이라는 미스터리라는 층위 위에 진실과 거짓, 믿음과 진리 같은 인류역사의 보편적 물음이라는 미스터리 층위를 한 겹 더 얹어 신의 존재여부가 아닌 인간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찬 물신화되지 않은 순수한 삶에 대한 믿음을 들여다본다. 그 과정에서 고통의 자리를 대신해 찾은, 혹은 나타난, 또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힌트에 불과하다. 즉, 미스터리 소설에서 흔히 이용되는 맥거핀으로 이용된다.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무신론자에게도 신의 자리는 있다는 데 있다. 끊임없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을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을 의심하는 것,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선 무신론자의 실존적 삶 안에서 신의 자리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이 소설을 읽는 동안 내 삶에도 신의 자리가 있어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살해된 12명의 목사를 순교자로 만들려는 유엔군과 국군의 음모를 이행하려는 육본 정보국 평양 파견대장 장 대령과 사건의 모든 진실을 평양 시민에게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는 주인공 이 대위. 그리고 12명의 목사가 북한군에게 살해되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신 목사와 한 목사.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절대 고독 속에서 살해된 박 목사의 아들 박 대위와 다시 고향 평양으로 돌아온 고 군목. 이들은 각각 인간의 진실과 신의 진리를 좇거나, 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확신하면서 참혹한 전쟁이라는 이 고통이 왜 인간의 삶에 자리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간다. 소설가는 6명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의 파열음을 통해 목사 집단살해사건의 진실을 복원한다. 그런데 소설의 진정한 시작은 이때부터다. 소설은 언뜻 끝없는 이항대립적 요소들의 나열로 보인다. 요컨대 전쟁과 평화, 이념과 이념, 자백과 고백, 부역과 (신에 대한) 배신, 신과 인간, 진실과 거짓, 사실과 진리,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 등등. 그런데 6명의 인물들이 각자의 믿음과 진실 또는 진리를 위해 서로 부딪혔을 때 놀랍게도 이 끝없는 이항대립 요소들은 파괴되거나 무의미해져 버리는 광경을 연출한다.

박 대위 : 우리가 말하는 동화(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와 그들의 현실 사이의 벽은 때로 아주 얇은 것 같아. (p.229)

장 대령 : 헌데 그가 영웅은커녕 유다가 되어 나타났는데도 보라, 그들은 그를 받아들였도다가 되고 만 거야. 신 목사건 다른 목사들이건 간에 그들은 내가 도와주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한 식의 그런 도움은 그들에게 필요 없었던 거야. 난 그의 행동을 이해해. (p.185)

이 대위: 진리는 목사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장 대령 혼자 것도 아닙니다.(p.179)

신 목사: 난 평생 신을 찾아 헤매었소. 그러나 내가 찾아낸 것은 고통 받는 인간..... 무정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뿐이었소.(p.255)

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서로 다른 자신'만'의 진실(진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세히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공통된 숨겨진 단어, 정확히는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인간이다. 신이 아닌 인간 말이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신 목사는 거짓으로 유다가 되어가면서까지 인간을 지키려 한다. 진실이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진실만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고 믿는 이 대위 또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다. 장 대령과 박 대위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반목과 갈등의 관계였던 이들은 결국 인간이란 공통 명제를 서로에게 발견함으로써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인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다. 물론 믿음은 가혹한 진실을 대체할 수 없다. 다행히도 그 역은 성립한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가혹한 진실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 대위와 신 목사의 말마따나 신은 인간의 고통에 무심하거나 그럴지도 모른다. 그와 달리 고통 받는 인간은 고통에 찬 인간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그 고통을 이해하려 든다. 고통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난다. 이해함으로써 그 비참한 고통이 둘로 쪼개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이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기에 인간이해라는 가능성을 삶에서 발견했다. 무신론자 이 대위와 자신만의 신을 믿는 신 목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고통 받는 인간이라는 데 있었다. 여기에 신의 개입은 없었다. 인간이해란 오롯이 인간이 만들어낸 자리이다. 인간은 자리를 필요로 한다. 삶과 죽음 사이에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자리이다. 내게는 당신을 이해하는 자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당신도 분명 그럴 것이라 나는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 위에 실존한다.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 장려상

장려상

## 나라 잃은 언어는 어디에 가닿을 수 있는가 차학경의 『딕테』를 읽고

장혜령



지난겨울, 종로의 찻집에서 나는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우리는 분명 같은 종로에 있었지만 서로의 종로는 다른 것이었다. 그의 종로는 1960년 봄,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종로였고, 나의 종로는 2000년 여름, 종로서적 3층에서 책을 뒤적이며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던 종로였다. 그의 눈이 종로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60년 4월의 종로가 불쑥 나타났다. 그곳은 내가 오직 책에서만 알 수 있던 세계였다.

그의 이름은 차학성. 만주 용정에서 태어났다 했다. 해방 후 남한에서 살았는데, 한국 전쟁 때는 부모 형제를 따라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4·19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무수히 많은 이름 없는 청년들 중 하나였다. 그 일은 결국 그의 가족 모두를 미국 망명으로 이끌었다. 이후 그들은 머나먼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며 살았다. 형제자매가 다섯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 모두에게 ‘학문’과 ‘배우다’란 뜻이 담긴 ‘학’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다.

아이들은 자라서 예술가가 되었다. 글을 쓰고, 영화와 미술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예술가가 된 것은,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기회를 얻은 것은 기이하게도 미국에서의 일이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인이 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이유로 누구보다 ‘차이’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했던 것이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나를 이어준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딕테』라는 이름의 낯선 책.

90년대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있지만, 20여 년 넘도록 절판된 책. 출간 당시 소설/산문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은 시로 쓰여진, 장르적으로 분류 불가능한 작품. 불어로 DICTEE, 받아쓰기란 뜻을 가진 그 책은 바로 그의 죽은 여동생 차학경이 썼다.

차학경의 책 『딕테』는 미국에 이주해 받아쓰기를 하며 영어와 불어를 억지로 배워야 했던 유년시절의 기억에서 연원한다. 어린 차학경은 가족들과 얼마간 떨어져, 자기보다 학령이 어린 나이의 꼬마들과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조숙한 소녀에게 이런 상황에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차츰 그녀는 깨달았을 것이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자기 몸에 타자의 말을 심는 일 이기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자기 언어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는 아이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흡수한다. 우리가 모어를 배울 때 언어 습득의 폭력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의 우리는 자기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 생존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는 다른 언어가 자기 안에 들어와 몸을 갉아내고, 구멍을 뚫고, 그것이 종양이 되어 부풀어 오르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온전히 타자를 수용한 적 있는 자만이 마침내 자기 언어를 갖는다.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배운 사람은 영어가 모어인 사람과는 다르게 말한다. 차학경은 자신이 말을 할 때마다 수많은 타자가 자기 몸속에서 웅얼거리고 있음을 체험했을 것이다.

『딕테』는 두 개의 언어로 이뤄져 있다. 주로 영어로 작성되었고 사이사이 불어가 등장한다. 그녀는 영어를 불어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불어를 다시 영어로 옮기는 연습을 한다. 그러나 이 받아쓰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아무리 옮기려 해도 결코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옮겨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한 언어와 다른 언어 사이의 거리, 한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 사이의 거리(distance)다. 그 거리가 그녀의 존재가 놓인 곳, 고향 잃은 그가 서 있는 자리다.

책의 한 챕터에서, 그녀는 미합중국 공항의 입국 심사 데스크 앞에서 있다. 그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묻는 그 질문은 미국에 입국한 뒤에도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가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어머니는 자신처럼 모어를 읽고 만주에서 일본어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다.

『딕테』에서 차학경은 만주 용정에서 일본어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던 어린 한국인 여성(어머니)를 향해 편지를 쓴다. 그러나 그 편지는 결코 그 시절의 어머니에게로, 그 시절의 조선사람들에게로 도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서로의 종로가 다른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조국과 실제 조국이, 어머니의 기억 속 장소들과 실제 그 장소가 결코 같은 곳

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학경은 1970년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박정희 정부의 독재국가였던 나라에서 자신이 생각하던 고향을 찾지 못한 채 큰 실망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 책은 내용적으로는 받아쓰기를 하며 언어를 배운 자기 이야기에서 출발해, 작가의 어머니 허형순 씨, 역사적 인물 유관순, 잔 다르크, 성 테레사의 이야기 등을 연대기적 질서를 거슬러 있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기록사진, 그림, 도큐먼트를 섞어 만든 실험적인 책이다. 이런 형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그의 책이 난해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쉽게 ‘말할 수 없던’ 한 존재의 난해함, 바로 그것이 차학경 정체성의 근간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이 책의 형식이야말로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던 한 이방인이 개척한 그 자신의 거처였다. 이 책만의 감동은 거기서 나온다.

차학경은 망명자였고 결코 고향에 닿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누구보다 집요하게 근원을 고민하며 글을 썼다. 루마니아 출생이었던 시인 파울 첼란은 자신의 고향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현대 독일어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것처럼 망명자의 고향은 국경이라는 한계도, 박해라는 억압도 손댈 수 없는 무엇이다. 일찍이 일본 제국이 강압으로도 조선의 민중들과 망명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서 빼앗지 못한 목소리의 언어다.

차학경의 책 『딕테』를 나는 한 편의 긴 시로서 읽었다. 시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토의 규정을 거스르는 힘이다. 어떤 영토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자유를 향한 의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존재들의 역사를 쓰고자 하는 의지이자 기필코 언어를 통해 너머에 닿고자 하는 마음이다.

## 피의 언어

제인 정 트렌카의 『피의 언어』를 읽고



제인, 저를 기억하시는지요? 3년 전, 독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당신은 제가 내민 『피의 언어』 맨 앞 페이지에 이 문장을 적어주셨지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관심도,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능숙한 필기체, 영어로 쓰인 그 문장 밑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가 자리합니다. 마지막 글자를 쓴 뒤 저를 올려다보던 당신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형형한 눈빛이 걸맞은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메모아르(memoir)’를 좋아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회고록이나 회상록, 혹은 자서전으로 분류되지만, 저는 당신의 책을 수식하는 ‘메모아르’라는 장르가 그 단어들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개인성, 한 사람에게만 유일한 삶의 경험에서 어찌면 그 어느 픽션 장르도 보여줄 수 없는,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저는 어렴풋이 생각해왔습니다.

경계 위에 선, 보호의 원 바깥에 놓인, 이른바 ‘주변화된’ 존재들에 언제나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날, 저는 “입양인 문제에 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신히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제인, 제가 아는 당신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을 사람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되어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물로 살고, 당신을 버린 조국으로 돌아와 어렵게 생모를 만나고, 그녀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길을 지켜보고, 끝내 ‘피의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을 설립하고, 한국의 대학원에서 입양 문제를 공부해 논문을 쓰고, 그리고…… 딸을 낳아 홀로 키우는

당신.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당신은 답했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는 어느 독자의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짧았으나, 저는 그 말을 하는 당신의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잊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툰 한국어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저 이루문 경-아-입니다.” 그러자 당신의 손을 잡고 있던 당신의 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가냘픈 목소리로 자신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영어 한 마디를 말합니다. “아이 러브 유, 경아. 아이 러브 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저는 당신의 기억 한가운데에 함께 서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당신의 책을 읽는 내내 그랬습니다. 괴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기억을 적어 내려가는 당신의 언어는 여러 번 파괴되고, 고통과 함께 쌓아 올려지고, 한 순간 다시 허물어지고, 종종 눈물에 젖습니다. 소수인종, 여성, 그리고 입양아인 당신은 무수한 불안과 모욕을 견뎌왔을 것입니다.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빠르게 규정되지 않는 존재라는 이유로. 책을 덮고 자주 울었습니다.

제가 본 당신은 당신이 쓴 글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고통을 인내하기만 한 체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얼굴은 원망, 분노, 슬픔, 고독, 그 모든 것을 지녔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그 바깥에 당신의 삶이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별과 배제라는 단어들만 지독하게도 끈질기게 당신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경계에 서본 이들만이 타자를 품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형형히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과 함께 당신에게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만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해외입양 관련법에 합의된 생모에 대한 인식을 반 년 동안 찾고, 나머지 반 년 동안 그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한국이 정부수립 이후 20만 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로 송출한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고아나 혼혈아, 미혼모의 자녀 등 이른바 ‘비정상적인’ 가족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입양아동이 되어야 했다는 것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 당신이 딸을 고요하게 끌어안은 모습을 저는 요즘도 종종 상상해봅니다. ‘핏줄’이 무엇인지,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했던 당신의 시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신과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상성에서 이탈된 존재, 당신에게 가장 갈급했던 것은 당신을 오롯이 당신 자체로 보아주고 안아줄 단

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따뜻하게 뛰는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딸을 품에 안으며, 당신은 비로소 ‘삶’을 되찾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감히 상상합니다. 그 온기, 절대적 환대와 무목적적인 사랑의 물성을 온전히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은, 글썬요, 이 세계에 아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부모와 이별한 경험도,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세계 속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놓였던 기억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혹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무언가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명료하게 분류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이유로 모멸감을 느껴야 했던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책은 그 무엇보다 따스한 포옹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스럽게 적어 내려간 언어로, 당신의 마음 어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 서도 멈추지 않았던 기록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옹은 제가 지금껏 그토록 편입되고자 노력해온 정상성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건네주었습니다. 저 자신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며 난민이며 혼혈인이며 젠더 퀴어이며 입양인이며 장애인인 저의 모든 친구들과 아직 친구가 아닌 이들을, 저러한 명칭들로써가 아니라 그들 각각이 지닌 고유한 이름으로써 호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적 개인성, 그 무엇으로도 일반화될 수 없는 개개인의 유일무이한 경험에 경청하는 것만이, 편협한 자아로부터 우리 자신을 들어내어 새로운 지평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각각의 이야기를 언제까지나 경청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류 체계와 배제의 세계가 아니라, 두 팔 벌려 타자를 안는 따스한 환대의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히, 당신의 책을 통해 제가 틈을 수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포옹을 보냅니다. 부디 무탈하시길.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을, 디어 제인.

장려상

# 정체성 시련, 나의 얼굴은 내가 서 있는 곳과 조응하는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을 읽고

김재영



주인공 헨리 파크는 한인 이민 1세대 부모 밑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다. 아기 때부터 미국에 거주했음에도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한국식 사고방식’ 탓에 미국 사회 안에서 늘 자신의 자리를 의심한다. 부모님이 고집한 일련의 가치관과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해온 그는 타인의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존재를 확인 받으려는 불안정한 주체이다. 그가 겪는 정체성 고뇌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두 사회의 경계에서 몽그적거리는 한 개인의 복잡한 정체성은 어떤 모양새를 띠는가? 한 사람을 이루는 몇 겹의 정체성 아래 있는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얼굴을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듯 『영원한 이방인』은 정체성과 관련된 절묘하고도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질문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 인물 ‘존 강’과의 만남 전부터 불균질한 세계관의 소유자가 체감하는 한계에 관한 수기가 펼쳐진다. 백인 아내 릴리아와의 차이, 부모님의 방어적 태도, 직업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앞에서 스스로를 지우고 반쪽짜리 인간으로 살면서 억눌러온 욕망은 이후 주인공이 겪는 격동과 변화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에 다가가기 위해 부모님이 고수한 소극적인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의 공대를 나와 석사 학위까지 받았으나 한국 사회에서 농촌 출신은 일정 위치 이상 오를 수 없음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 미국에 정착한 인물이다. 아버지의 전사를 듣게 된 헨리는 의문점을 품는데 정작 미국에서 그는 한인에게 허락된 크기만큼의 성취에 순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25년간 청과상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이유 없이 린치를 당해도 방문을 걸어 잠글 뿐인 삶. 점점 가게를

늘려가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헨리가 보기에 아버지의 성공은 안전한 테두리 너머를 결코 넘보지 않겠다는 신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아버지는 견고한 한국식 네트워크의 장벽에 좌절한 진취적인 야심가가 아니라 실리주의를 신봉하고, 다른 이민자를 착취하는 ‘보편적인’ 유형의 성공한 이민자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한 ‘두려워하는 이민자’의 전형에 속한다. 이웃과의 교류를 극도로 꺼리고 집안의 풍경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아버지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지만 가정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는다.

성장기에 강력한 배경으로 자리했던 강박적이고 폐쇄적인 집안 분위기에 질린 헨리는 부모님과 다르게 살아가려 했음에도 결국 어떤 운명을 이어받게 된다. 특정한 대상에게 접근하여 캐낸 정보를 의뢰인에게 넘기는 일종의 비밀공작 업체에서 일하게 된 헨리는, 이제 새로이 추가된 첩자라는 정체성으로 존재를 승인 받은 듯한 기분을 느낀다. 직업을 비밀에 부치고 일에서 취하는 자세를 삶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아내 릴리아에게조차 거리감과 감정적 사각지대를 둔다. 언제나 감정을 억제하고 어떤 충만감도 드러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답답함을 느꼈던 그는, 릴리아와의 관계에서 남편 역할을 적당히 수행하며 내밀한 감정 교류를 대신하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다. 아들 미트만큼은 세상을 향한 긍정과 확신을 지닌 존재로 기르려 애썼지만 아이들과 과격할 장난을 치던 도중 미트는 죽음을 맞는다.

본격적으로 한국계 정치인 존 강의 뒷조사에 착수한 헨리는 선거 사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존 강의 헌신적이고 유능한 실무진은 그의 뒤에서 이미지가 소비되는 방식을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한다. 존 강의 군중을 끌어당기는 인상과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어딘지 헨리의 비밀 작업과 닮아 있다. 그는 타겟이 바뀔 때마다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배합하여 새로운 인물을 꾸며내는 단계를 거친다. “일련의 연쇄 정체성”에 입각한 ‘전설’ 만들기과 실무진의 업무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정치인 존 강의 중심에는 다른 무엇보다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과 연대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명의식이 놓여 있었지만, 차기 시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인 실무진은 현직 시장 데 루스에 맞서 기만적인 전술의 힘을 빌린다. 정치 대결에 잇따르는 소동과 그 과정에서 강이 갖게 된 여러 얼굴은 파국의 징조가 아니었을까?

강의 파국이 예견된 것이라 하더라도 헨리는 그의 추락 이후 퇴보하는 모습을 이중적인 정치인의 민낯으로만 읽어내지는 않는다. 한 사람에게 속한 다양한 정체성이 모두 견

히고 난 뒤에 남는 최종의 얼굴은 헨리에게 인생의 핵심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폭파 사건과 에두아르도의 죽음으로 수렁에 빠진 강의 정체성은 모든 의욕을 잃고 아무 대처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 헨리는 처음으로 건설적인 모델을 제시해준 강이 빛을 잃고 스러져가는 모습에 아버지의 전기를 대입하며 그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찾아낸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단단히 발 딛고서 자기 존재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찰하는 한편 불안한 자의식, 자기방어, 자기 부정과 같은 정체성 절망의 세목을 잘 짚어낸 작품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  
김은국의 『순교자』를 읽고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날, 평양에 있던 목사 열네 명은 북한군 비밀경찰에 이끌려 공개 처형장에 선다. 그리고 그중 단 두 명의 목사만이 살아남는다. 장이 넘어갈수록 독자는 살아남은 두 목사를 둘러싼 사건의 진상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된다. 복잡하게 얽힌 진실과 거짓, 신념과 현실 사이를 정신없이 헤집게 된다.

『순교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종(鐘)’이다. 종은 작품 곳곳에 슬며시 등장해선 핵심적인 단서를 흘린다. 덩그렁, 덩그렁. 전쟁으로 계단은 날아가고,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은 교회 종탑에서 종이 울린다. 그리고 바로 이 종을 대하는 자세에서 등장인물의 내밀한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분이 오시면 저 종탑도 어떻게 손질이 될 거외다(p.24).”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종을 보며 한 늙은이가 말한다. 늙은이(=민중)가 기다리는 그분은 신 목사로 대표된다. 늙은이의 바람대로 신 목사는 전쟁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새로운 희망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신을 배반한 열두 명의 목사들을, 죽음 앞에서 신념을 잃지 않은 경건한 순교자로 둔갑시킨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설파하며 민중에게 삶의 의미를 건네는 것이다.

장 대령은 말한다. “종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p.21).”

그에게겐 신(神)도, 진실도, 고통받는 민중도 안중에 없다. 오로지 군(軍)을 위해서 나아

간다. 군을 위해서라면 없는 신도 만들어 내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중을 포기한다. 그는 신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기독교를 배반한 열두 목사의 진실을 폭로하진 않을지 전전긍긍한다. 공포 앞에 무릎 꿇은 신념이 국군의 사기를 꺾어놓는 상황을 두려워한 것이다.

“교회 사람들이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p.24).”

종을 처음 마주한 이 대위가 뺨은 말이다. 그에게 진실은 완전무결한 진리다. 군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민중을 위해서든 진실은 결코 비틀어져선 안 된다. 그는 위태롭게 매달린 종을 교회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주길 원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반대로, 신 목사는 진실을 외면한다. 이 대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신 목사를 경멸하지만 이내 놀라운 사실을 듣는다. 신 목사가 신을 버린 지 오래며, 오로지 절망에 빠진 민중에게 힘이 되기 위해 연기하고 있을 뿐이란 것. 이 대위는 신 목사의 태도에 갈등한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진실보다 상처 입은 민중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는 거짓이 더 옳은 건 아닐지.

종소리를 들은 박 대위가 신경질적으로 외친다. “저 종을 어떻게 좀 하질 않고서!(p.171)”

독실한 목사였던 아버지와 연을 끊을 정도로 그는 신을 증오했다. 그의 아버지는 처형당한 열두 명의 목사 중 한 명이었고, 박 대위는 아버지가 죽음 앞에서 신을 배반했기를 기대하며 평양에 온다. 그리고 소망대로 그의 아버지가 신을 부정했다 사실을 신 목사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배교를 확인한 후, 박 대위는 외려 교회 부흥에 힘쓰기 시작한다. 아버지를 통해 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민중이 삶을 기댈 수 있는 동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신 목사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종은 결국 국군의 폭격으로 무너진다. 국군은 평양의 민중도 버리고, 그들의 희망도 파괴한 것이다. 그러나 신 목사를 받든 고 군목의 천막 교회 안에서, 한 소년의 손엔 여전히 작은 종이 들려있다. 작지만 틀림없이, 종소리는 울리고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 단 한 명, 종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있다.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군의관 민 소령이다. 그에겐 애초에 종소리는 관심 밖이다. 민 소령은 신앙이 아닌, 인간이 고안해 낸 방식으로 민중을 돕는다. 약을 투여하고 수술을 집도하면서 부상자를 돌본다. 서울로의 철수를 포기하면서까지 부상자와 함께한다. 그에겐 신 목사도, 이 대위도, 국군도, 공산군도 단지 치유해야 할 한 명의 사람일 뿐이다. 종교나 국가, 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은 보편적인 인류애. 어쩌면 이것이 작가가 다음 세대에게 바란 새로운 형태의 희망은 아닐까.

우리 곁엔 민 소령만 있어선 안 된다. 진실만을 쫓는 이 대위만 있어서도,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장 소령만 있어서도, 거짓을 설파하는 신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된다. 아니, 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다. 진실보단 대의를 쫓는 장 소령이 있어야 하고, 진실을 지키려는 이 대위가 있어야 하고, 고난 속에서 희망이 될 수 있는 신 목사가 있어야 한다.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각자의 신념을 따르며 살아갈 뿐이다. 하나하나의 신념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단단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려상

## 『중국색시』- 경계의 끝에서만 만날 수 있는 패랭이꽃

홍예화



『중국색시』는 세 번 읽은 셈이다. 처음에 연재로 띄엄띄엄 읽다가 책으로 나온 뒤 한 번, 인터넷으로 또 한 번 읽었다. 재미있지 않았으면 세 번을 읽을 수 없었을 거다. 남의 이야기지만 내 것 같은 이야기, 소근소근 귓속말을 하듯 은밀하면서도 조곤조곤 파고드는 듯한 그의 어투는 읽을수록 빠져들게 했다. 왜 사람들이 허련순의 소설을 좋아하는지를 다시금 알게 해 준 작품이다.

조선족의 고향 찾기와 고향 상실의 아픔을 그린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와는 달리 『중국색시』에서 허련순은 소통을 통한 이해와 치유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 위기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다.

작가는 ‘잡종’이라는 어두운 태생의 기억을 지닌 단이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한쪽 다리마저 잃은 한국 남자 도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핍과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 치유 받지 못한 상처는 타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단이와 도균은 어쩌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연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다. 작가는 이들을 따스히 감싸며 상처를 치유하는 대안으로 사랑, 이해, 관용을 제시한다.

소설은 ‘자아 찾기’를 통해서 인간 존재의 근원 탐구로 나아간다. 단이는 한족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족들에게는 ‘꼬리빵즈’로 조선족들에게는 ‘싼동빵즈’로 놀림을 당하며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그녀는 “원죄와도 같은 상처를 지닌 채 이방인으로 태어난 셈이다. 한족과 조선족이라는 경계지대에서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과율이 어긋난 모순된 세계를 보면서 불안하게 성장했다.”

이도 저도 아닌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남자와 맞선을 볼 때는 어쩌면 어머니의 혈통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맞선 자리에서 “무슨 민족이냐”는 남자의 질문에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태생에 절규한다. “나의 몸에는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피가 흘러요...나는 한족이면서도 조선족이고 거꾸로 한족도 조선족도 아니죠. 그런 나는 누구일까요?”

소설은 결국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그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이는 이민의 역사를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상징이며, 그녀가 겪고 있는 것은 소수자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피할 수 없는 과거이자 현실이며 또한 미래이다.

나는 소설을 읽는 내내 도균의 잃어버린 ‘다리’에 주목했다. ‘다리’는 남자의 또 다른 의미이다. 다리를 상실한 도균은 남성을 상실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는 욕망과 결핍 속에서 외롭게 대항한다. 절단된 다리는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기도 하며 채움에 대한 욕망을 은닉하고 있다. 작가는 도균의 비어있는 다리를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재는 장치로 사용했다. 세 번 이별하면서 도균의 다리에 대한 단이의 느낌은 매번 다르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비어 있는 바짓가랑이’는 어느새 그녀를 ‘가득 채워주는’ 존재가 된다.

5년 만에 단이의 고향으로 찾아온 도균은 거기서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이는 “그 아이가 하나뿐인 나의 치유인 것처럼 당신한테도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도균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돌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서로의 사소한 몸짓과 습관 속에 서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음을 눈치챈다. 이것이 삶이다.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스며있고 닮아 있는 것... 기나긴 엇갈림의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궁극적인 치유를 얻는다.

치유는 가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엄마를 죽게 만든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인 찬이는 단이에게 있어 피가 철철 흐르도록 사금파리로 굵어버리고 싶은 과거, 죽도록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다. 하지만 그 굴레가 그녀를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한다. 더럽고 지저분한 담요라도 때로는 겨울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작은 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 곁의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온기가 지닌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준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

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단이와 도균은 “경계의 끝까지 가야만 만날 수 있다는 패랭이 꽃, 만질래야 만질 수 없어 영원히 저만치 있을 수밖에 없는 패랭이 꽃”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이 소설이 지닌 깊은 감동이고 따뜻한 위로였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몸짓이기도 했다. 소통의 힘은 패랭이꽃처럼 작은 것에 있고, 작은 것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의 시작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설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하나가 되는 ‘우리’의 이야기 금희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을 읽고

한고은(안양예술고3학년)



이산문학, 즉 디아스포라 문학은 이주자의 삶과 정체성을 그린 문학이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의 화자는 주로 조선족으로, 저자 금희 본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온다. 소설에서는 이주민으로서 본 원주민과 또 다른 이주민을 그린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이루어지는 화자의 정체성 탐구는 우리에게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 1. 세상에 ‘하나 뿐인’ 나의 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의 주인공 ‘나’는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한국어교사를 하고 있다. 소설은 나와 닮은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닮은 사람이 나에게 한 질문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인……인가요?”라고 묻던 닮은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의심스러웠다고 묘사된다. ‘나’는 그러한 반응이 익숙하다는 듯이 자신이 조선족임을 밝힌다. 소설에서 ‘나’는 어디를 가든 ‘나’가 아닌 조선족으로 분류된다. ‘나’는 ‘나’라는 인간이 아닌 조선족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살아가며 ‘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한다. 그 모습은 소속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비롯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중국에도, 한국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나’의 혼란은 마라탕을 먹으면서 닮은 사람과 나는 대화에서도 드러난다.

-애, 넌 모르지? 가끔 나는, 네가 되고 싶다는 거

-왜?

(중략)

*-내 집이랑 니 집이 같니? 니 건, 완전 니 거잖어.*

‘나’는 닝을 부럽다고 말하며 자신의 집은 ‘완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 내 것도, 남편의 것도 그렇다고 은행의 것도 아닌 집. 온전히 누군가의 것이 되지 못한 집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자신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은 계속해서 이 완전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집의 인테리어를 정하면서 ‘나’는 정형화된 ‘모델’하우스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규정된 아름다움을 좇아 자신의 집의 이미지를 생각한다. 그렇게 ‘나’가 저장한 사진들을 보고 남편은 “대체 어떤 스타일로 하겠느냐”고 묻는다.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아놓은” 인테리어는 마치 ‘나’처럼 어떻다고 규정되지 못한다. ‘나’는 “남편은 이곳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비로소 ‘우리 집’다워질지, 그것을 알고나 있을까”라고 말한다. 이것은 남들의 시선 그리고 정형화된 기준에 묶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나다운 것’을 모르는 ‘나’를 보고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만이 겪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해 탐구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자신이 남들이 속하는 곳에 속하지 못했을 때, 나를 남들과는 ‘틀린’ 존재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로 판단한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은 필자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나’는 완전한 중국인인 닝과 완전한 한국인인 연주를 부러워한다. 그들은 속하는 국가가 있었고 자신처럼 어중간하게 두 언어를 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에 의해 불완전해진 자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생각과 다르게 닝과 연주는 ‘나’를 부럽다고 말한다. 그들도 결국엔 ‘나’가 생각했던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네가 네 ‘말’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넌 뭐 네 ‘말’을 할 줄 모르나?*

*-글쎄, 나비는 나비의 세계가 있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세계가 있다고 했던가? 나는 왠지, 내가 여태 나의 세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자신이 틀린 존재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신이 하는 언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닝은 ‘나’의 언어를 어떠한 국가의 것이 아닌 ‘네 말’이라고 한다. ‘나의 말’은 중국어나 한국어로 규정되지 않고 오직 ‘나’는 스스로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닝이 규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과 달리 유동적인 ‘나’의 모습을 부러워했음을 알 수 있다. 연주 역시 “언니, 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묻는다. 타국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타자로 느껴진 것일까. 연주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은 우리에게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것이다.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가 아닌, 다른 존재인 것이다. 소속되지 못했다는 타자성, 그리고 소속되고 싶다는 욕망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어디에 규정되지 않고 ‘나’의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 물론 자신의 출생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출생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이다. 우리는 출신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로 사람을 보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방인, 즉 디아스포라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판단되고 규정에서 벗어난 ‘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은 같을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다르고, 서로에게 ‘타자’로 존재한다. 때문에 어딘가에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한가지는 분명하잖니?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하던 것대로 무작정 그러지 않았다는 거.

소설의 막바지에서 ‘나’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좇지 않고, ‘나다운 것’을 찾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집을 만든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이라는 제목은 이주민이 느끼는 배타적인 사회를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에 없는’ 단 하나뿐인 나만의 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단 하나뿐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정말로 다문화가 될 수 있다. 사람 각자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 2. 타인, 그리고 우리 「옥화」

「옥화」는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서 다른 타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타자성에 더 깊게 파고든다. 소설은 불법체류자 탈북민인 여자과 홍의 과거에 있던 탈북민 옥화에 대한 이야기를 교차시키며 진행된다. 「옥화」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직접적으로 보여준

다. 주인공인 홍 역시 자신의 기준에서 여자와 옥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홍은 자신과 같은 조선족인 시형이 한국에서 겪는 “사람들의 배척과 편견,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에는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눈만 뜨면 일, 일하는 것 외에 그 나라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돈벌이 기계 같은 생활, 그곳에서 시형네는 몸뚱어리 하나와 불법체류자 신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자처럼? 옥화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형네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자신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시형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홍은 옥화와 여자를 떠올린다. 자신의 가족이 살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해줬음에도 도망친 옥화.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어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여자. 홍은 시형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그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조선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라는 말은 탈북민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사람도, 조선족도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되지 못하는 그녀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 차별과 편견을 겪는다. 여자에게 교회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자가 고마워하지 않고 주는 일 자리를 족족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는 것에서 사람들은 ‘탈북민은 모두 게으르고 얽치었다’라는 판단을 한다. 그것은 홍도 마찬가지였다. 홍은 여자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이나 정직한 양심 따위마저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탈북민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옥화와 여자는 모두 자신의 의사는 묵살당한 채 팔려가 누군가의 아내, 엄마 노릇을 하기를 강요받는다. 여자는 “나는 내 배로 낳은 내 아새끼도 내빼리고 다망친 사람이라요”라고 말한다. 자신을 무자비한, 윤리적인 의식을 잃은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탈북민 여성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버리고 살아간다. 시형이 말한 “몸뚱어리 하나와 불법체류자 신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최전선에 탈북민 여성이, 여자와 옥화가 있는 것이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홍에게만 자신의 속이야기를 하는 여자와 옥화에 게서 홍은 “믿음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죄인이 된” 그녀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봤던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옥화」는 타자에게 갖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이방인’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수면 위로 드러낸다. 본인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편견을 가진 채 판단하는 사람들. 자신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열악한 이방인을 편견을 갖고 보는 홍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홍의 모습에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던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동정한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소설 「옥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타인의 삶을 자신의 기준에서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이 아닐까.

금희 작가의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은 단순히 이방인의 슬픔을 다루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다문화를 제외하고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이 소설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었다. 나와는 거리가 먼 조선족 화자의 이야기임에도 공감하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모두 세상에 ‘이방인’으로, ‘타자’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려상

“따져보면 어떤 가족이든  
사는 모습 비슷해요.”  
유미리의 『가족시네마』를 읽고

오주영



‘때가 타기 쉬운 흰색의 커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나온 유미리 원작, 우병길 각색의 시나리오 <가족시네마>를 접어든 내 첫 느낌이었다. 다음으로 과장되게 큰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고, 짙은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와 그 옆의 남자가 흑백 사진으로 조그맣게 제목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진은 영화의 스틸컷 중의 하나로, 주인공 모토미의 엄마와 그녀의 불륜 상대를 찍은 것이다. 영화의 스틸컷 중에는 주인공 모토미가 나오는 사진도 있고 아빠 하야시와 엄마 기요코, 그 둘의 세 자녀인 모토미, 요코, 가즈키가 모두 나오는 스틸컷도 있다. 그런데 왜 굳이 엄마 기요코와 불륜 상대인 후지키가 표지에 있을까? 본문 중 모토미가 엄마 기요코의 집에서 나오며 건물 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다. 모놀로그로 표시된 모토미의 대사는 다음과 같다.

(M) 엄마는 늘 백 엔짜리 라이터를 꼭 쥐고 벼랑 끝에서 살고 있지만 접화하는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원작에 의하면 엄마는 카바레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후지키를 만난 뒤 집을 나갔다. 후지키는 평일에 회사가 끝난 뒤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와 저녁을 먹고 돌이서 목욕을 하고는 12시가 되면 처자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엄마는 아빠 하야시를 떠났지만 후지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지 않았다. 모토미가 있는 것을 핑계로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다는 후지키를 엄마는 “내가 짝소리 안하고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라며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 불로 협박한다. 가족의 상실과 대신하여 얻은 후지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그녀를 떠날 수 있다. 그런 그를 엄마는 백 엔짜리 라이터를 손에 쥐고 붙잡고자 하지만, 그를 완전히 잡을 수도 없고 잡지 못한다고 불태워 모든 것을 끝내지도 못한다.

가족의 상실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엄마 기요코 외의 다른 가족들은 무엇을 찾았을까, 그리고 기요코와는 다르게 그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

시나리오에는 먼저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을 잡은 짧은 컷으로 등장인물들을 소개한다. 불륜 상대 후지키와 부동산으로 엄마 기요코를 나타내고 빠칭코 구슬과 비싼 시계들로 아빠 하야시를, 숨 막힐 정도로 깨끗한 방과 테니스로 장남 가즈키를, AV 영화는 차녀 요코를 드러낸다. 회사에서 상품 기획을 하는 장녀 모토미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후카미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녀 또한 문제적 개인임을 알 수 있다.

각 등장인물을 나타내는 상징들은 모토미 가족 개개인이 가족의 해체로 인한 상처를 대체할 무언가를 찾은 것과 일치한다. 그 대상은 기요코에게는 후지키였고 모토미에게는 죽음의 냄새, 현실감이 느껴지는 고향의 후카미였으며 가즈키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최근에는 테니스)으로, 요코는 영화를 통한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다. 한편 아빠만이 가족의 재결합을 원한다.

요코의 출세에 대한 욕망은 가타야마 감독의 다큐도 아니고 픽션도 아닌 획기적인 영화를 만들겠다는 욕망과 만나 모토미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어낸다. 뿔뿔이 흩어진 모토미 가족이 20년 만에 다시 모인다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작품 속 영화는, 모토미 집 안에서의 촬영을 통해 모토미 가족의 불행한 과거를 조명하고 엄마와 아빠의 싸움 장면으로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원작과는 달리, 한국어로 욕을 하는 장면과 어린 가즈키와 모토미가 한국어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시나리오에는 과거 회상 장면으로 들어가 있다. 엄마와 아빠가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에 어린 가즈키와 모토미는 집 앞에 나와 귀를 틀어막고 있는데, 가즈키가 묻는다. “쌈할 때 한국말 하면 이겨, 누나?” 모토미는 “몰라, 한국말!”이라고 대답한다. 회상 장면이 끝나면 감독의 “컷” 소리와 함께 가즈키는 귀에서 손을 떼다.

시나리오를 읽고 원작과 영화 DVD를 구매한 나는 원작을 읽고 놀랐다. 제일교포 가정의 붕괴를 그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원작에는 한국에 대해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문구조차 없다. 원작가 유미리는 재일이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운 소설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하며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장소에서 쓰고 싶다.”라고 말했다.<sup>1)</sup> 그런데 각색된

1) 柳美里·辻仁成, 「書くしかない」, 『文学界』, 1997, p.134

시나리오에서 갑자기 제일 한국인 가정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1998년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식민지배로 인한 일본에 대한 반감과 자국 문화 보호 등을 이유로 막아온 일본의 대중문화 유입을 처음으로 허용한 해이다.<sup>2)</sup>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박철수 감독은 양석일과 유미리의 친동생 유애리 등 제일 한국인 배우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며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로 촬영하는 영화를 기획하였다.<sup>3)</sup> 한일 대중문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는지 회상 장면 이후에도 스키 구의 아빠 하야시 집에서 ‘갈비찜’과 ‘한국식’ 요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감독과 조감독의 대화에서도 “감독님 어딘가 재일본 한국교포 가정을 구체화시켜 줘야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재일본 한국교포 가정을 구체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인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것이, 재일본 한국교포 가정을 구체화했다고 하기에는 시나리오 속에서 제일 교포 가정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어 육과 갈비찜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붕괴된 가족의 모습에 ‘재일 한국교포’라는 이름만 갖다 붙였을 뿐, 그 속을 드러내어 실제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담아냈다고 할 수 없다. 원작에 없던 아버지의 폭력 장면까지 더해져 오히려 재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시나리오 속 가타야마 감독은 왜 하필 자신의 가족을 찍느냐는 모토미의 물음에 “다 쳐보면 어떤 가족이든 사는 모습 비슷해요.”라고 하며, 재일본 한국교포 가정을 구체화해 두자는 조감독에게는 “꼭 규정 짓거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난 그냥 사람 사는 모습이 찍고 싶어.”라고 말한다. 모토미 가족의 극단적인 예는 아니더라도, 어떤 가족이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1-A와 1-B같이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그들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원작에서 첫 촬영 장면 중 모토미는 테이블에 둘러앉은 가족을 보고 ‘우리들 사이에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의식이 서로 닿을 때마다 접촉 불량을 일으켜 웅성거리는 증오와 짜증이다.’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촬영에서는 ‘그 증오심을 바깥으로 향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저 타인과 타협하지 못하여, 미워했을 뿐’이라고 한다. 시나리오에서도 나라와 언어를 떠나서 가족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그들에게

2) “[어제의 오늘] 1998년 일본 대중문화 1차 개방 발표”, 경향신문, 2009년 10월 19일

3) “박철수 감독의 '가족시네마' 일본현지서 막바지 촬영”, 중앙일보, 1998년 9월 8일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세상을 대하는 비뚤어진 개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제일 한국 교포에 대한 언급 이외에 원작에 없던 내용을 넣어 각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또렷하게 보이게 한 것은 좋았다. 원작에서는 다른 가족들의 캐릭터가 모토미 한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이는 데 반해, 시나리오에서는 카메라가 비추는 대로 각각의 캐릭터를 관찰할 수 있다. 테니스를 치고 있는 가즈키에게 술에 취한 아빠 하야시가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과 스키 구의 하야시 집 촬영 장면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이다.

하야시가 모토미, 요코, 가즈키를 앉혀 놓고 식사를 하며 가족이 다시 모여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중에 엄마 기요코는 2층 화장실에서 습관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가슴을 만지며 몰래 그 집의 가격을 전화로 물어보는 장면은 압권이다. 하야시가 함께 살기를 설득하다 말고 기요코의 불륜에 관해 이야기하려 하자마자 기요코가 화장실에서 나와 등장하는 것도 재미있다. 하야시와 기요코의 모습을 희극적으로 잘 묘사한 장면이다.

또한 스키 구의 집은 유미리의 <풀하우스>에 나오는 집을 옮겨놓은 듯하다. “정원에 연못을 파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금 잉어를 사다 넣겠다.”고 말하는 하야시의 모습은 <풀하우스>에서 그 집에 얹혀사는 또 다른 일그러진 가족의 가장이 “연못을 만들어 잉어를 잔뜩 기르겠다.”고 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그의 딸인 어린 소녀가 어항 속 살아있는 금붕어를 버리고 귀뚜라미를 집어넣는 장면과 그 모습이 모토미와 똑같다고 말하던 요코의 모습과도 겹쳐 보인다. 깨알 같은 이스터에그다.

떨어져 살던 가족이 스틸컷 촬영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사진을 찍게 된다는 설정은 아이러니를 통해 더 강한 여운을 남긴다. 마지막 촬영에서의 날씨 변화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절정에 이르기까지의 긴장감을 더해 준다. 촬영 시작 시에 비가 올 것 같던 하늘은 촬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더 어두워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치며 인물들의 갈등과 함께 절정에 이른다.

결국 아빠의 바람과 달리 가족은 재결합할 수 없었으며, 엄마가 후지키를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모토미 또한 후카미와 계속 만날 수 없었다. 과거의 상실로 인해 생겨버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모토미와 가족들에게 있는 것만 같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만 타협하지 못하고 어딘가 비뚤어져 버렸다. 시나리오의 아빠만이 어디론가 사라져 없는 시사회장에서 완성된 영화를 보는 다른 가족들의 모습으로 끝난다.

원작과 비교하며 여러 번 읽다 보니 책의 흰 커버는 아니나 다를까 검은 때가 타 있었다. 어디에서 묻었는지 지우개로도 지워지질 않는 것이 마치 책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올라 그대로 박혀버린 나의 상념 같았다. 그래서 그 검은 때에 ‘나의 유년기와 현재’를 갖다 붙여보았다. 나에게도 2-A, 2-B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 나는 무엇과 타협하려 했는지 이제 내 머릿속 필름을 돌려봐야겠다.

## 경계에 선 자들

-가네시로 가즈키, 『GO』를 읽고-



대학원에 처음 입학하고 만난 조선족 룸메이트 언니가 있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언니는 종종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다고.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말을 하며, 무엇보다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 언니는 중국인이다. 다만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에서 어릴 적부터 조선어를 배웠으며,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이 언니에게는 이러한 것이 소수민족 교육의 일종일 뿐, 한국인이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체로 한국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정부로부터 동포라는 이유로 여러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나도 이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 조선족을 한민족으로 알고 있었다. 이 언니는 두 국가의 경계에 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가네시로 가즈키, 『GO』의 주인공과 굉장히 닮아있어 책을 읽는 내내 그 언니가 떠올랐다.

『GO』는 제일 한국인 ‘스기하라’라는 남자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소설이다. 스기하라는 제일 조선인인 아버지를 따라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면서 북조선 국적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고, 일본인들에게도 외국인으로서의 차별을 받는다.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그는 ‘국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수많은 편견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분노는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일본인’ 여자친구 사쿠라이와의 충돌에서 폭발하게 된다. 사쿠라이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면서 줄곧 강한 모습만 보였던 스기하라를 무너뜨린다. 스기하라에게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국적’이

라는 걸림돌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절망과 충격을 준 것이다. 결국 둘은 갈등을 해소하게 되고, 사쿠라이의 “가자”라는 말로 책이 끝난다. 이 마지막 말에 내 심장이 쿵쿵 하고 뛰었다. 이는 작중 스기하라가 느꼈을 심경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분노와 설움을 감싸 안아주는 데서 오는 감동이나 후련함의 일종이었으리라. 덕분에 작품을 읽는 내내 가득 찼던 나의 분노까지도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실제로 재일 동포 작가인 가네시로 가즈키는 스기하라의 이 같은 울분을 통해 경계인으로서의 고통과 혼란을 절실하게 표출하였다. 또한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섬세하면서도 유쾌하게 풀어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부인 취급을 받아야한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버겁고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처절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동시에 그들을 이해해본 적 없는 죄책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조선족 언니가 가슴 속 깊은 고민을 나에게 털어놓았을 때, 사실 나는 그 고통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머리로만 이해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GO』는 이러한 경계인들의 괴로움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감사한 작품이다. 조선족은 재일 동포와 달리 자신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만, 불가피한 차별이 존재한다. 직장을 구할 때나 회사 승진 문제에 있어서 암묵적인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국에서도 한민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영화에서 끔찍하게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살인을 자행하는 집단으로 묘사되어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 그 언니는 지도 교수님에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았다가 교수님의 한 마디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경계에 선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그렇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국가에 속박되어 그 나라의 전통과 인습에만 얽매어 살아간다. 그리고 자신들의 잣대로 그들을 이름 붙이고 편견 짓는다. 이 같이 편협한 사고에 박혀있는 이들과 달리 그 언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스기하라의 아버지가 줄곧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던 말과 국가 같은 것에 편입되거나 귀속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스기하라의 일관적인 다짐도 이러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GO』는 가벼운 필치로 흥미롭게 전개되어 자칫 재미로 읽을 수 있지만, 무겁고도 어려운 주제를 담고 있어 책을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경계선 안쪽의 사람으로서 경계에 선 자들에 대해 함부로 정의내릴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평생 안고 갈 정체성 혼란의 문제와 갈등, 방향 등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O』에서 그려진 바와 같은 무비판적인 편견과 배척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고통스럽게 견뎌 나간 스기하라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경계인으로서의 당당함과 통쾌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스스로 감내해야 할 숙제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삼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국가의 정책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이들과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작은 인식 변화를 통해 차가운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가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장려상

## 어디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서경식의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을 읽고

김보라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일조선(한국)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 동유럽 국가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등이다. 그리고 각 나라의 소수민족과 강제 이주된 식민지 사람들, 난민들이 떠오른다. 뒤로 갈수록 그야말로 ‘추방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기행』의 저자 서경식의 말대로 “삶의 기반이 여기 외에는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 내내 ‘나는 누구인가’하는 물음은 피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서경식은 프롤로그에서 “언어 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왔음에도 일본인이 아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국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문제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닌 채 일어난 상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경식은 일본에서 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일본의 물건을 쓰면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의 문화대로 호호해왔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인이다. “민주화투쟁을 하는 한국 동포들과 함께”하고, “형들이 해방되는 날이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 삶은 자신만 이해할 수 있다. 이때의 ‘이해’란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까지, 흡수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뜻한다. 자신이 가진 소수성으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즈음에서, 나는 디아스포라를 소수자의 삶으로 이해하기로 했다. 다수의 삶에 “합류”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여전히 ‘바깥’에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유한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리라는 것을 실감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이다.

특정 사회나 국가 속에서 소수자로 사는 것, 규정되지 못한 자로 사는 것은 힘겨운 일

이다. 외부로부터 수많은 의문과 공격을 받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끝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수자라는 것은 장애인으로 사는 것, 성소수자로 사는 것, 취업준비생으로 사는 것, 노숙자로 사는 것, 어떤 모습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어서 오늘 약속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일, 월체어 이용자라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편을 겪는 일, 성소수자라서 부모와 겪는 갈등, 벌써 수십 개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취업준비생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의 심정, 노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같은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 말로 설명한다고 한들 당사자들끼리의 동감과 이해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것이다. 모든 순간이 의문과 의심이며, 그것은 관계 속의 폭력이 된다.

디아스포라의 경우, 그 의문과 의심이 ‘나’에게도 있지만 국가와 민족, 조국에게도 생긴다. 그러므로 폭력 또한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그 아픔의 이유를 찾고 풀어야 할까?

그 예로 이 책에 등장하는 시린 네샤트는 “고국인 이란에 출입국할 때, 언제나 두려움과 긴장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치관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두 나라 중 하나를 조국 및 고국으로 다른 하나를 모국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분열과 상극은 자아의 내면에까지 이르게 된다.”디아스포라는 자아라는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국가라는 거대한 단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그것은 제도나 종교 같은 거대한 틀임과 동시에 슬픔과 괴로움과 같은 감정이기도 하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부분은 ‘후지노 노부루’로 불리던 미술가 ‘문승근’과 ‘이우환’의 만남을 그린 장면, 그리고 이우환의 회고에 관해 서경식이 “그 시절에는 문승근처럼 고뇌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감상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종교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거나 귀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더불어 서경식은 재일조선인 1세대인 이우환과 2세대인 문승근과 자신은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덧붙인다. 디아스포라 안에서든 시간은 흐르고 세대가 생긴다. 그들 안에서든 정체성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의심은 지속될 것이다. 영원한 타자이며, 이방인이며, 다수 속 소수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저자는 “무엇보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릴 때마다”, “만약 결혼해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상상할 때마다 확인한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딱딱한가. 아무리 해도 더 자연스럽게 살 수는 없는 걸까. 그 원인이 나 자신이

라는 외곶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봐도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은 나 자신을 애처로워하고 미워했다.” 그는 모든 문제가 아무래도 자의식이 강한 외곶, 즉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특수한 정체성에 의한 고뇌다. 타자로 쫓겨난 자의 “추방당한 자”의 정체성으로는 그런 자아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남들보다 더 자주 묻고 답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소수자들의 고뇌는, 나쁘게는 자책으로 좋게는 자아 찾기로 계속된다. 아마도 평생 지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끝내 묻는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언제나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이다. 여기서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는 것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어떤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나 또한 묻는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나의 소수자성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나를 나답게 만들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 김시종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독후감

미야지마 요코 (宮島 陽子)



5년 전에 한 일본 여행사가 기획한 투어를 통하여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당시 나는 1948년에 그 땅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그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만끽하는 관광객이었다. 그 여행을 계기로 한국에 유학한 나는 올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한구석에 마련된 동백꽃 그림이 눈에 띈 특설 전시를 보러 갔다. 그것은 무려 3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제주도 4.3 사건 70주년을 추념하기 위한 전시회였다. 올해 언론 보도에는 제주도 4.3 사건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12년 만에 참석하고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하였다는 기사가 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70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 일들이었다.

김시종의 이 작품은 필자가 제주도 4.3 사건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일본 오사카에서 제일조선인으로 살게 된 과정을 서술한 회고록이다. 작품의 이야기는 필자가 ‘황국 소년’이었던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해방을 통해 눈뜬 민족의식과 신탁통치를 둘러싼 내외의 이념대립 상황,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을 계기로 본격화된 반공주의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야기의 핵심인 제주도 4.3 사건은 심각한 이념대립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가운데 미군정 및 경찰이 이를 강압하면서 발생하였다. 민중들은 미군정이 일본강점기 때에 민중을 억압했던 세력을 그대로 이용하는 통치 방식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필자의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인가?’ 하는 탄식에 당시 민중들의 심정이 축약될 것이다.

이 회고록은 아직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실태가 당사자인 필자의 입을 통해 시시각각 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위한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필자는 4.3 사건에 앞선 삼일절 기념대회 경찰 발포 사건을 계기로 총파업과 시위가 제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과정, 그리고 이에 맞선 경찰의 단속 및 민간인에 의한 테러 행위를 자세하게 회고한다. 지금 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제주 4.3 사건을 ‘건국 과정에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한 제주 양민’이라고 표현하는 인사가 있는 만큼, 단순화해서 붙잡으면 안 되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한 경험담의 중요성은 강조할 만하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만 해도 4천 명의 희생자가 새로 판명된 상황인 만큼, 희생자 수는 공식 발표인 3만 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당시 미군정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희생자의 대다수는 목숨을 잃지 않았었고, 경찰과 무장대 사이에서 화평 교섭의 가능성도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한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기원해본다.

이 자전을 읽으면서 가장 애달프게 여겨진 것은 필자가 일본으로 향한 어선을 타기 전에 아버지와 성급하게 나누는 짧은 대화가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필자에게 한 말은 ‘비록 죽더라도 내 눈이 닿지 않은 곳에서 죽으라는 것이 나와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다’ 였다. 필자는 일본 오사카에서 삶의 터를 잡았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임시 여권 발급을 받아 다시 제주도 땅을 밟게 되었다. 이것은 무려 49년 만의 고향 방문이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묘가 겨우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한반도 분단 과정과 정쟁을 포함한 격동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이별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 기나긴 이국 살이 동안 이별한 자족을 얼마나 걱정하고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슬펐다. 살육의 고향에 부모를 남기고 혼자 도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던 필자였으나 그의 고독한 이국 살이를 지탱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릴 때 받은 일본어 교육과 시였다고 한다. 필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고유한 문화를 동시에 지닌 자로서 존재한다는 점에 재일조선인으로 사는 의미를 발견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이라는 한 곳에서 같이 사는 재일조선인의 실존이야말로 일상차원에서 남북대립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민족융화와 통일의 장이다.’ 라는 필자의 주

장과 유사점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서울 유학 생활을 통하여 처음으로 제일 한국인의 지인이 생겼을 때까지 그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번에 김시종의 자전을 읽으면서 그동안 영화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만 접해온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 제1회 한민족 이산문학 독후감대회 수상작품집

---

발행인: 김사인

발행처: 한국문학번역원

발행날짜: 2018년 9월

주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웹사이트: [ltikorea.or.kr](http://ltikorea.or.kr)

디자인: (주)버리커뮤니케이션